

민주자치 발전포럼

4 경상남도 통영시

“2019 추진사업 현황과 과제”

2019년 2월 27일(수) 오후 2시

통영시청 대강당

주최 :  통영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주관 :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 추진배경 및 목적

-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실천방안 모색
- 국정과제 연계형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실천방안 모색
- 광역·기초지자체 및 의회의 정책·입법 역량 강화 지원
- 경남권 현안 발굴 및 실천방안 모색

□ 진행 개요

- 주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통영시
- 주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 일정 및 장소

진행 개요	
통영시	• 일 시 : 2월 27일(수) 14:00~16:00 • 장 소 : 통영시청 대강당

- <정책토론회> 진행프로그램(안)

• 사회: 문병주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진행순서 및 패널(안)		
발전포럼	인사말	•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 민홍철 국회의원 / 경남도당위원장 • 김정호 국회의원 /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장 • 강석주 통영시장
	14:00~14:30	
	정책토론회 통영시	• 주 제: “통영시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 발제 1: 통영시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 • 토론 1: 소아응급실 현황과 과제 (정병두 통영시장애인복지관장) • 토론 2: 통영 해양생태계 보전계획(지옥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 토론 3: 통영 조선업의 위기와 극복과제(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 토론 4: 통영시 도시재생, 짚어보고 내다보다 (최광수 경상대학교 교수) • 참석자 자유토론: 지방의원 및 당원(대의원) 및 지역민 등
	14:30~16:00	

- 자치발전연구센터 구성원 안내

성명	직책
강득구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문병주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고영국	정책네트워크실 연구위원
박동욱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허필운	자치발전연구센터 연구원

민주연구원장 인사말



민주연구원장
김민석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님, 강석주 통영시장님, 지역의 기초·광역의원, 지역위원장 여러분과 통영시청과 통영시의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당원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이번 「경남 통영 민주자치발전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 소속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함께 해주신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발제를 맡으신 배운주 통영시의회 부의장님, 토론에 참여하신 최광수 경상대 교수님, 정병두 통영장애인복지관 관장님, 지옥철 통영환경운동연합 의장님,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님과 행사의 좌장을 맡아주신 강득구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연구원 내에 설립된 자치발전연구센터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치발전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 경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어제는 창원, 오늘은 통영을 찾아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우리 당은 강령과 당헌·당규에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신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8일, 기초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함께 잘 살아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성공이 곧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성공이라는 자세로, 통영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향의 고장 통영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나아가 포용국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7.

▶ 당대표 축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해 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통영에서 열리게 된 경남 민주자치발전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님,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과 김정호 의원님, 강석주 통영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그 실천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추어 민주연구원 내 자치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지방혁신 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영시민들께서는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통영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선거 직후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라고 술회하셨습니다. 통영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겨내야 하는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통영의 성공이 곧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인 통영의 조선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또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역특화사업은 집권당의 보증 아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곳 통영을 시작으로 지방 혁신과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고 뿌리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민주자치발전포럼의 더욱 다양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7.

이 해 찬.

▶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축사



국회의원
김 두 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경남 통영 민주자치발전포럼」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남 통영시 2019년 핵심사업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경남도당위원장 민홍철 국회의원님,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님, 강석주 통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배운주 통영시의회 부의장님, 최광수 경상대 교수님, 정병두 통영장애인복지관장님, 지옥철 통영환경운동연합의장님,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님을 비롯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올 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올 해는 그 새로운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셨고, 당·정·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남은 단일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4조 7천억 원 규모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50년 숙원을 해결하고 경남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육성과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R&D투자 사업은 제조업의 혁신 성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의 숙원 사업과 예산들을 반영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에 이어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와 예산 확정 단계에서 최대한 지역의 요청들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남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도지사 구속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기에 지난 2월 18일 올해 가정 먼저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했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과 통영을 비롯한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연장, 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 산단 조성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시는 것은 지역의 현장이고, 그 변화의 힘도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의 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의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와 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정책들이 지역의 현장 곳곳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자치발전포럼이 개최되는 통영시는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메카이자 ‘동양의 나폴리’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 충무공 이순신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제조업과 문화관광산업, 수산업 및 농업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근 성동조선 법정관리 등 조선 산업의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양 도시로서 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폐조선소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변화와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통영시 관광산업에 큰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주자치발전포럼은 광역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자치정부 단위에서부터 지역의 현안사업들과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반영해 나간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자치발전포럼을 통해 통영시 경제 재도약과 국민의 삶의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말씀해 주신 통영시의 현안들을 챙기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들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민주자치발전포럼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7.

경상남도당 위원장 축사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
민 홍 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민홍철입니다.

자치분권 및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정책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경남 통영 민주자치발전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법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 지위를 얻게 되는 창원과 조선 산업의 위기로 인해 재도약을 시도하는 통영에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여겨집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이번 문재인 정부처럼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정부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나 지방자치의 날 축사에서든 문재인 대통령은 한결같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었습니다. 그만큼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며,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경남에는 1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이번 민주자치발전포럼이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것은 작은 단위에서부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논함으로써 그 근간을 튼튼히 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모쪼록 창원과 통영은 물론이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정부의 국정이 잘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한층 발전된 경남, 창원, 통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와 경남도당 역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창원과 통영을 시작으로 민주자치발전포럼이 지속적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논의된 내용 하나하나 지역의 발전, 경남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챙기고, 살펴보겠습니다.

경남도당은 항상 경남의 발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7.

국회의원 축하



국회의원
김 정 호

안녕하십니까. 가야왕도 2,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김해시을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통영에서 <2019 민주자치발전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경상남도당, 민주연구원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살고,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불균형은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더욱 앞당기고 있습니다. 모두 전근대적인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은 지역에서 직접 인프라 건설과 개발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컨설팅과 연계사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치분권과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이뤄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경제와 민생의 주체로서 우뚝 서고, 중앙정부는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2019 민주자치발전포럼>을 통해 올해 통영시의 핵심사업과 향후 과제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이를 밑바탕으로 통영을 비롯한 우리 경남이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데에 귀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7.

통영시장 축사



통영시장
강 석 주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시장 강석주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올바른 민주자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해 <경남민주자치발전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최근 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며, 350만 경남도민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는 시스템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영의 지역사정은 그리 희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지역의 근간이 되었던 수산업과 조선업의 위기로 인해 지역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지역경제는 큰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우리 통영은 인근 거제시·고성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과 함께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을 넘어 <고용·산업 위기지역 특별법>이 촉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선 지방자치 이래, 처음으로 3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민의 행복과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의 경제 상황, 지역 청년들의 이탈과 인구감소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경남민주자치발전포럼을 통해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져 주민과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통영시도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남민주자치발전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정치의 다양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7

Contents

민주자치발전포럼 **4** 통영시

정책(聽策)간담회

[발제 1] 통영시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11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	
[토론 1] 소아응급실의 현황과 과제	29
정병두 (통영장애인복지관장)	
[토론 2] 통영 해양생태계 보전계획 관련 토론의견	35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토론 3] 통영 조선업의 위기와 극복과제	43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토론 4] 통영시 도시재생, 짚어보고 내다보다	53
최광수 (경상대학교 교수)	

통영시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배윤주 (통영시의회 부의장)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

2019 경남 민주자치발전포럼

2019. 2. 27.(수) 14:00

통영시 2019년 핵심사업 추진현황



경상남도 통영시

(<http://www.tongyeong.go.kr>)

I. 기본현황

1 지역특성

- 한산대첩, 6.25 원문전투 등 승전·구국의 현장
-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의 해양관광휴양의 도시
- 세계적인 예술인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고장
- 청정해역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한국 수산의 1번지

2 일반현황

- 인 구 : 59,125세대, 133,720명
- 면 적 : 239.64km²
- 행정구역 : 1읍 6면 8동 212리 170통 1,318반
- 도서현황 : 570개(유인도 44, 무인도 526)
- 문화재 현황 : 66건(국가지정 24, 등록 6, 경상남도 지정 36)
- 기반시설 및 주요시설
 - 도 로 : 810.757km
 - 주 택 : 66,470호(112.92%)
 - 단독주택 35,515호, 공동주택 30,955호
 - 도시가스 : 39,615세대(보급률 72.4%)
 - 상 수 도 : 26,275전(보급률 98.9%)
 - 하 수 도 : 483.158km(보급률 82.7%)
 - 복지시설 : 408개소
 - 의료기관 : 145개소
 - 학 교 : 40개소(초 20, 중 12, 고 5, 대 1, 특수 1, 기타 1)
 - 공원 및 소규모 쉼터 : 309개소
- 자매(우호) 결연도시
 - 국내 : 서울 강남구, 과천시, 여주시, 합천군, 천안시
 - 국외 : 일본 사야마시/다마노시, 미국 리들리시, 중국 룡청시/원푸시,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러시아 사마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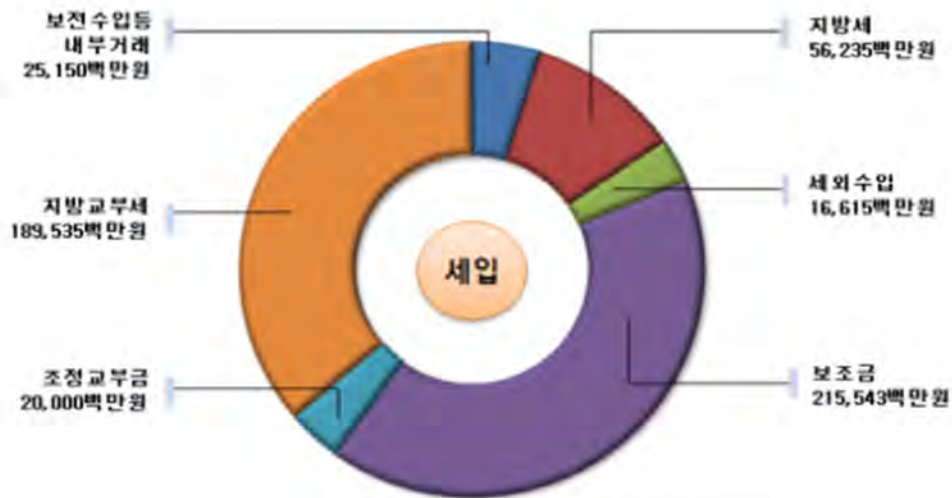
3 재정현황

2019년도 예산규모 : 5,59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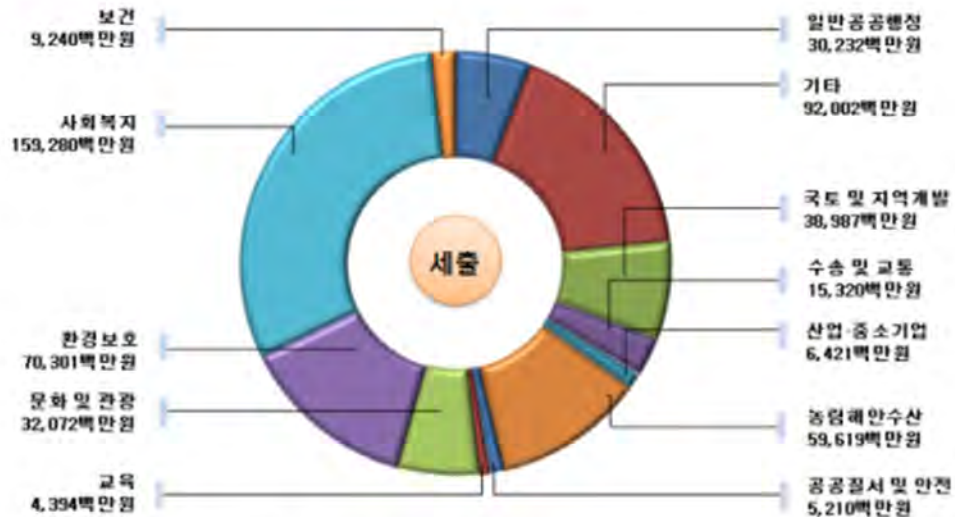
* 재정자립도 13.9% (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523,078백만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 특별회계 : 36,688백만원

- 주택사업,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 도시교통, 의료급여, 도서발전소관리, 상하수도공기업

Ⅱ. 통영시 현 상황

【총평】

- 지속적인 인구감소
- 고용율(51.3%), 실업률(6.2%) 등 고용지표 전국 최하위
- 고용위기(2018.4.5.) · 산업위기대응(2018.5.29.) 특별지역 지정
- 주요 관광지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기 장기 침체

1 인구 분야

■ 인구수 변화 추이

(단위: 명)

연령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2015년 대비)
계	139,168	138,160	135,833	133,720	-5,448
0~14세	20,566	19,964	19,147	18,281	-2,285
15~64세	98,456	97,301	94,632	92,595	-5,861(▽5.95%)
65세 이상	20,146	20,895	22,054	22,844	2,698(△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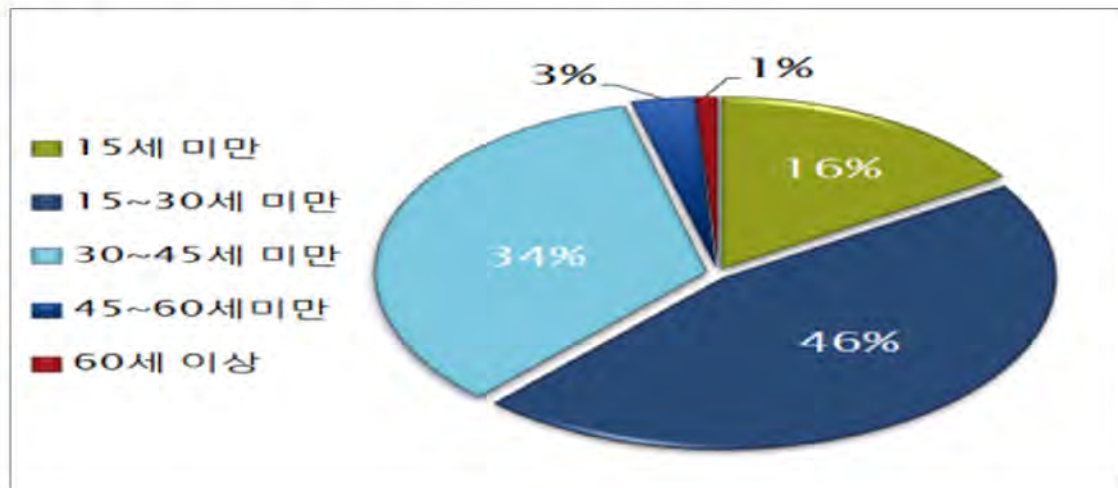
➡ 2015년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음

■ 인구 이동 추이

연령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입자	19,214	19,591	18,473	17,866	14,586	16,888
전출자	19,198	20,275	19,095	19,044	16,816	18,649
순이동	16	-684	-622	-1,178	-2,230	-1,761

➡ 전입자 대비 전출자가 많아 급격한 인구 감소현상이 두드러짐

■ 전출인구 연령별 현황(2017~2018년 기준)



⇒ 경제활동인구의(청장년층) 전출 비중이 월등히 높음

■ 출생아수 추이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생아수	1,228	1,267	1,266	1,071	865	661
출생아 비중	0.28	0.29	0.28	0.26	0.24	0.19

⇒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통영지역 출생아 수 및 전국 대비 통영지역 출생아 비중 급감

2 고용 분야

■ 고용지표 변화

연령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고용률	60.2	61.6	58.5	57.9	54.9	51.3
실업률	1.2	1.7	2.9	3.3	5.8	6.2

경남 지역별 고용 동향

(단위: 천명, %)

구분	고용률	실업률
창 원	59.1	3.4
진 주	58.2	3.4
통 영	51.3	6.2
사 천	63.2	2.9
김 해	59.7	4.3
밀 양	57.1	2.2
거 제	58.6	7.0
양 산	57.4	4.7



※ 자료 출처 : 통계청, 통계포털 www.kosis.kr

⇒ 고용률은 전국 시 단위 최하위, 실업률은 거제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높은 수치임(2018년 상반기 기준)

■ 실업급여 지급건

구 분	2017 4/4분기	2018 1/4분기	2018 2/4분기	2018 3/4분기	2018 4/4분기
지급자(수)	2,524	2,518	2,552	2,200	1,578

■ 사업장 피보험자 수

구 분	2017. 12월	2018. 3월	2018. 6월	2018. 9월	2018. 12월
사업장(수)	4,603	4,114	4,387	4,321	4,532
피보험자(수)	16,592	16,628	16,038	16,839	17,231

⇒ 공공 및 희망근로 지원사업 증가로 피보험자 수 다소 증가

3 관광 분야

■ 관광객 변화 추이

(단위: 천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관광객 수	6,355	5,350	6,601	6,494	7,348	6,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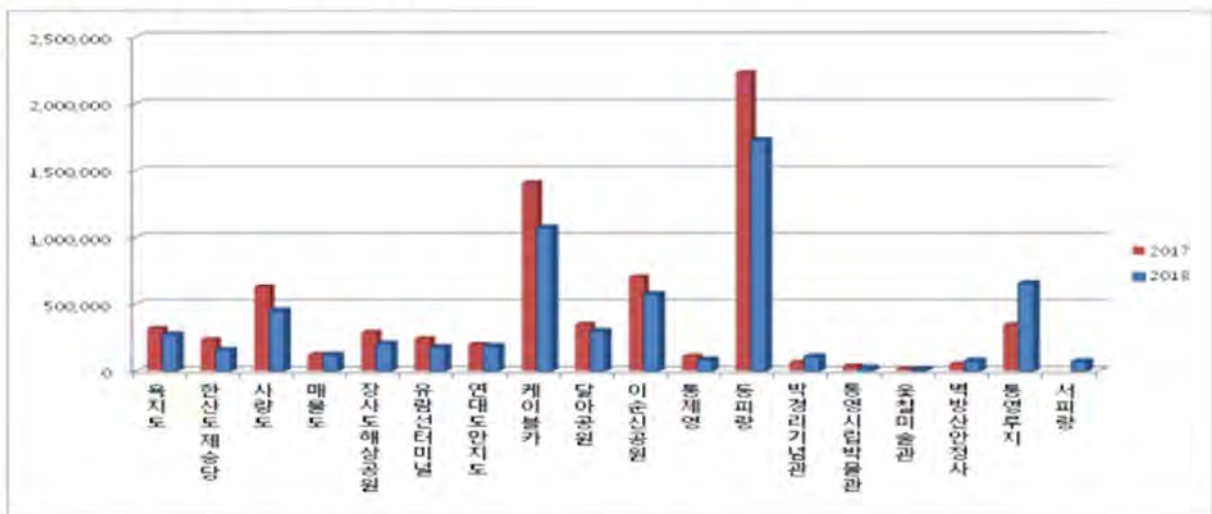
⇒ 2017년 대비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은 14%(1,070천명) 감소

통영케이블카 탑승객 현황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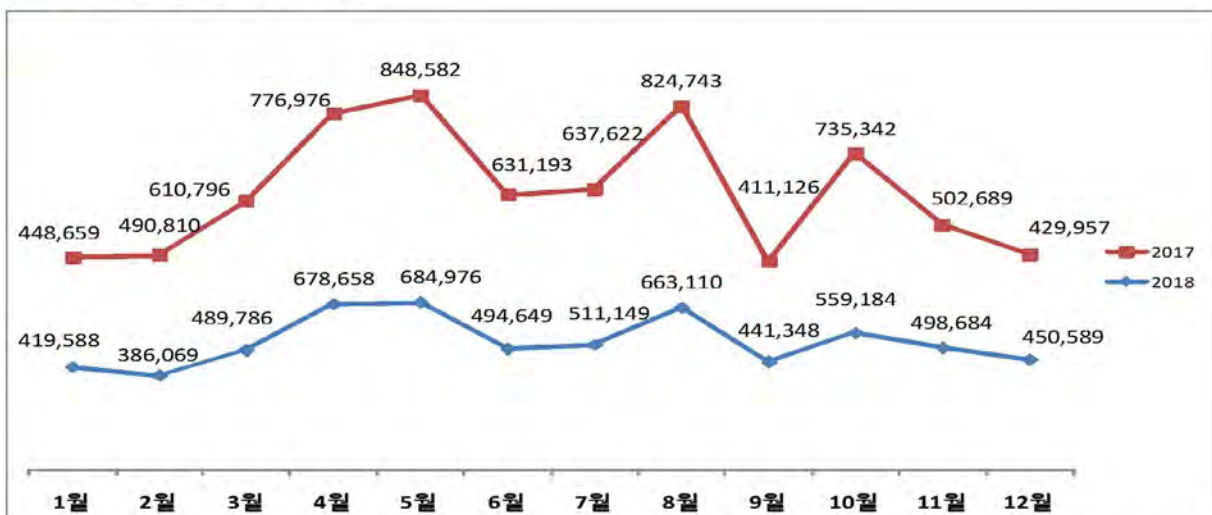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탑승객 수	1,371	1,212	1,362	1,233	1,407	1,071

관광지별 방문객 현황



⇒ 2017년 개장한 통영루지 외에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방문객 감소

월별 방문객 현황



⇒ 5, 8, 10월을 기점으로 관광객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이 두드러짐

■ 추진 실적 [청년 내일희망일자리사업 등 35건 28,986백만원]

- 정부 추경사업 10건 9,921백만원(국 7,054, 도 837, 시 2,030)
 - * 청년센터 운영 등
- 목적예비비사업 14건 12,465백만원(국 7,216, 도 805, 시 4,444)
 - * 통영야구장 시설개선 등
- 특별교부세 사업 11건 6,600백만원
 - * 안정산단 주변 우회도로 개설 등

■ 추진 성과

- 2018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행
 - 1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행 : 2018. 7월(297명, 6개월)
 -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행 : 2018. 11월(267명, 2개월)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사업
 - 내 용 :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취·창업교육 병행을 통해 민간취업연계 36개 기관 50명 채용 및 기관 투입완료, 2019년 30명 채용 예정
 - 사 업 비 : 684백만원(국비 452, 도비 45, 시비 187)
 - 청년창업 1번가 통영드림존조성사업
 - 내 용 : 청년예비창업자에게 월 임차료 및 소모성사업화 지원비 지원 모집공고 완료(10개소), 2019년 5개소 모집 예정
 - 사 업 비 : 217백만원(국비 126, 도비 9, 시비 81)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 일자리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
 - 내 용 : 취업상담사 1명 추가배치, 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40, 시비 10)
 - 임업분야 재취업을 위한 임업기능인양성사업
 - 내 용 : 실직자 대상 임업분야 재취업교육(45명)
 - 사 업 비 : 101백만원(국비)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규모 확대(3,000백만원→6,000백만원)

Ⅲ. 2019년 핵심사업 현황

1

도시재생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 조성

- ➡ 1000만 관광도시를 열어가기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문화, 관광, 해양산업이 조화 되는 통영다운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
-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 및 살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

1) 통영다운 문화관광예술도시 구현

■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

➡ “도시 그 자체가 예술, 통영”을 비전으로 ‘통영을 이해하고, 통영에서 살고, 통영을 만들어가고’를 목표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모색하는 문화도시의 가치 확산

○ 사업규모

- 2022년까지 약 30개소, 매년 5~6개소 문화도시 지정·지원

○ 우리시 지정신청

- 분야 : 예술중심형
- 사업 : 7개분야 23개사업 3개 핵심전략사업



■ 2019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 선정

➡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협약(2019. 02. 19.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유도하고,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

○ 사업내용

- 지정·비지정 무형유산의 목록화·기록화
-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무형유산 공연’
-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통영예술 콘텐츠 활성화

- 통영국제음악당 및 윤이상기념관, 통영시민문화회관 등 다양한 음악·예술 공연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음악도시 위상 제고

○ 사업내용

- 2019 통영국제음악제 【주제:운명(Destiny)】 개최
- 윤이상동요제,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통영예술제 등 개최

■ 대북 문화경제 교류사업 추진

-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시대 개막으로 화해 분위기 조성 및 남북교류 가시화

○ 사업내용

- 윤이상을 공동주제로 한 대북문화교류 및 교류 협력 기반 조성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남북 상호 방문 공연

2) 1000만 관광도시를 열어갈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 남망산 디지털파크 조성

-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특색있는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머무는 관광 활성화 및 조선산업 붕괴로 인한 고용산업위기 극복



○ 사업내용

- 시민문화회관(연면적: 9,767.52m²) 벽면 미디어파사드 장치 설치
- 남망산 산책로(공원면적: 128,381m², 산책로: 1.5km)에 테마가 있는 디지털미디어 장치 설치

○ 사업비 : 5,05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해저터널 리모델링

→ 우리나라 최초의 해저터널을 활용하여 영상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아쿠아리움으로 조성하여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

○ 사업내용 : 아쿠아리움 및 디지털 영상아트 신기술설치

○ 사업비 : 9,040백만원(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해저터널



디지털 영상아트(안)

■ 해양레포츠 활성화로 해양레저 메카 도시 위상 강화

→ 정부의 마리나산업 육성전략 부응 및 해양레저 산업의 급성장에 대비 해양레저산업 육성으로 침체된 조선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발굴·육성

○ 사업내용

-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레저선박 및 해양레저기구
제조·수리·정비 지원 시설
및 공동장비 구축, 전시·
판매시설, 해양레저 서비스
산업 집적화단지 등
- 요트계류시설 확충,
해양스포츠센터 리모델링
- 피서리나, 어촌마리나역 조성 등



3) 민관협력 기반의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 봉평지구(신아sb)도시재생 뉴딜사업

➡ 방치된 신아조선소와 주변 부지 활용 글로벌 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산업경제재생 :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 통영리스타트 플랫폼
- 공동체문화재생 : 주민커뮤니티 플랫폼, 항구마을 역사계승
- 주거환경재생 : 재생복지 플랫폼, 마을 인프라개선
- 관광·스마트재생 : 워터프론트 레지던스, 문화예술재생

○ 사업비 : 1조 1,041억원

※ 재정보조 417, 부차연계 2,020, 통영시 304, 공공기관(LH) 1,200, 민간 7,100



■ 지역 거버넌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지역 상황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내용

- 정량동 멘데마을 도시재생 - 주거지원형, 67,658㎡
- 명정지구 새뜰마을 조성 - 주거환경개선, 20,794㎡
- 도천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 윤이상 음악여행길 등

4)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 관광도시 기반 조성

■ 구도심권역 주차타워 조성

➡ 구도심권역(강구안, 중앙시장, 동피랑등)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객 편의 증대

- 사업내용 : 통영시 동호동 일원
5층 4단 주차타워 조성
(주차면수 358면)
- 총사업비 : 33,870백만원
(토지매입비 등 18,250,
용역비 120, 건축비 15,500)



■ 남부내륙철도 연계 대형 주차장 건립

- ➡ 관광차량 도심진입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KTX통영 역사와 연계하여 도심 외곽부에 관광객 전용 대형주차장 건립

- 사업내용 : 버스 50, 승용차 300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 건립
(연면적 10,000m²)
- 사업비 : 6,000백만원(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 통영KTX연계한 북신만대로 건설

- ➡ KTX 개통 대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도심에서 KTX역사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도로축을 형성하여 관광 활성화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5.0km, B=20m
(터널3개소 L=2.8km, 해상교량 L=0.95km)
도로확포장 L=0.6km, B=22m
(충무교 재가설 L=160m, B=22m)
- 사업비 : 240,000백만원(국비 69%, 시비 31%)



- ➡ 어촌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관광을 연계한 어업 외 소득 창출
- ➡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산지 가공시설에서 가공, 실수요자 맞춤형 특화된 상품 개발 및 판매로 고부가 창출

1) 대한민국 청정바다 지속 관리로 안전한 수산환경 조성

■ 청정바다 보존을 위한 오·하수 처리 시설 설치

○ 사업내용

- 지도 통합오수처리시설, 안정·황리 하수처리장 설치, 수륙·궁항 하수관로 매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 : 마을단위 생활하수 처리로 주거 환경 개선 및 연안 수질 오염 방지
 - ※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48개소 설치계획(21개소 운영중)



■ 해양쓰레기 친환경 처리 및 수거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친환경부표 공급 지원, 굴 패각 친환경적 처리,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용 뗏목 제작, 어업용 스티로폼 감용장 운영

■ 지정해역 위생관리

- 사업내용 : 무방류 시스템 항포구 화장실, 가정 정화조 수거, 가두리 오수처리시설, 바다공중화장실 감시선



2) 수산식품산업 고도화를 통한 선진어촌 건설

■ 수산식품 클러스터 유치 조성

-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및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고차 가공산업으로의 전환 및 어업(양식업) 및 관광·유통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6차 산업화 모범사례 구현



- 사업내용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건립

- 사업비 : 15,000백만원(국비 7,500, 도비 2,250, 시비 5,250)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현대화

- ➡ 수산가공업체의 가공공장 신축, 가공 및 위생시설 개선을 통한 수산식품 위생안전성 강화 및 고부가 창출

3) 첨단 기술 융합으로 스마트한 수산물 생산체계 구축

■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 ICT기반 스마트 양식장 확산 설치

■ 양식어장 자동화 및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

■ 고부가가치 명품수산물자원 조성



4)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어촌 혁신성장

마을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 견인

- 사업내용 : 방파제, 부잔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마을별 차별화된 어촌 관광자원 조성
- 사업비 : 5개 권역(산등항 외, 진두항 외, 가오치항 외, 진촌항, 연화항 외) 62,365

조 감 도



소아응급실의 현황과 과제

정병두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안타까운 현실

- 2010년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을 앓던 4세 소아는 대구 시내 5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1시간 거리의 경북 구미의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 6년 뒤인 2016년 9월, 전북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2세 소아는 14곳의 병원을 돌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송 도중 사망했다.
- 2017년 6월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A(2)양이 장난감을 삼켜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19 구급대는 어린이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해당 병원에서 ‘소아 응급 전문의가 없고 영유아용 내시경 장비도 없다’며 내원을 꺼렸기 때문이다. 구급대는 결국 병원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11km 넘게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A양을 옮겨야만 했고, A양은 ‘골든 타임’을 놓쳤다.
- 지난 2013년 의사 3명의 잇단 오진으로 사망한 B(8)군. 그는 맨 처음 S의료원 응급실을 찾아 변비 진단을 받은 날부터 11일이 지난 후 대학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찾고서야 급성 충수돌기염, 긴장성 기흉 및 혈흉 증세를 확인했다. 지난달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S의료원 의사 3명에게 금고 1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 “횡격막 탈장 진단을 지연해 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취지다.
- 소아 응급 환자에 대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응급센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아 환자는 원인 진단부터 장·단기 예후가 성인과 달라 적절한 처치 시기를 놓치면 더욱 위험하므로 특수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신생아 및 유아의 경우 고열이 날 경우 응급상황이 된다. 낮에는 열이 날 경우 인근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해가 지고 난 저녁부터 새벽 중 아이의 고열은 해열제를 먹이고 열이 떨어지는지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의료행위이다. 그러나 해열제를 먹고도 떨어지지 않는 고열일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이 된다. 응급실은 진료비도 비싸고 성인에 비해 덜 응급상황으로 인지하는게 보통이다. 무엇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어 원정 진료를 한다.

□ 통영시 응급기관 응급실 현황

의료기관			응급실운영	비고
시설명	소재지	병상수		
새통영병원	무전동	295	24시간 운영	지역 응급의료기관
통영중앙병원	광도면 죽림	202	야간진료 밤 9시까지	24시간 응급실 중단
통영서울병원	광도면 죽림	202	야간진료 밤 10시까지	

□ 통영시 소아과 병의원 현황

기관명	소재지	소아과 전문의	진료시간	
			평일	휴일
SCH서울아동병원	북신동	2명	19:00	토일 16:00
통영중앙병원	광도면	1명	21:00	토일 21:00
신세계소아청소년과의원	광도면	1명	18:30	토 16:00
통영자모소아청소년과의원	무전동	1명	18:30	토 13:00
평화소아과의원	북신동	1명	19:00	토일 12:30
강태훈소아청소년과의원	북신동	2명	19:00	토 14:00
박지영소아청소년과의원	광도면	1명	18:30	일 14:00

□ 통영시 현 실태 및 문제점

- 조선경기 악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탈출이 지역의 의료진 감소와 함께 의료 소외지역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 → 통영중앙병원 산부인과 의료진 감소, 소아과 의료진 감소, 24시 응급실 중단
- 통영에서 24시 응급실 운영 중인 새통영병원은 소아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영유아 응급진료가 불가능한 상태 → 현재 통영에서 오후 21:00이후 영유아의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없음

□ 대책 1. 응급의료 운영기관 지원

- 응급실 운영기관에 경영수지가 악화 될 경우 지방비 지원 확대

□ 대책 2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 사업목적: 응급실 외 평일 및 토·일·공휴일 야간 시간대에 소아경중환자가 외래 진료를 통해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 환자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비용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운영
- 사업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1조
- 운영시간

운영시간	평일	토·일·공휴일(명절포함)
표준운영시간	18시 - 24시	09시 - 22시
최소운영시간	18시 - 23시	10시 - 18시

- 경남 현황: 김해중앙병원, 웅상중앙병원(약국 6개소)
- 보건복지부는 2014년 9월, 부산과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의 8개 병원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한 부모의 94%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95%이며, 이용자의 만족도 평균이 80.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진의 전문성과 응급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비 등이 후한 점수로 나타남.
- 중소도시 운영 확대(30만명 이하도시)
- 맞벌이 부모의 자녀 병원동행이 원활해지고 응급실에 비해 저렴한 진료비와 소아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통영 해양생태계 보전계획 관련 토론의견

지육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장)

토론 2 통영 해양생태계 보전계획 관련 토론의견

○ 해양수질 보전

해양수질 악화는 대부분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물질에 기인하는데,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와 독성물질 유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수질을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폐수관리라고 할 수 있다.

1. 통영의 오폐수 관리현황

1) 하수도 보급률

구분	세대수	총인구(명)	하수처리인구	보급률(%)
통영시	53,371	138,791	110,418	79.6

2) 하수관거시설현황

(단위 m)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률 (%)	하수관거(합류식)			오수관거(분류식)		
			계획면적	계획연장	시설연장	계획면적	계획연장	시설연장
518,889	369,989	71.3.	24	285,343	212,292	14	148,673	99,312

3) 마을하수도 시설

구분	도산면 동촌	도산면 서촌	산양읍 학림	사량면 돈지	사량면 진촌	한산면 비진	산양읍 연대	용남면 견유
시설 용량	30m³/D	36m³/D	45m³/D	60m³/D	120m³/D	150m³/D	25m³/D	300m³/D
가 동 일 자	'95.11.23	'98.01.24	'97.02.17	'05.02.03	'05.06.06	'05.03.24	'06.05.02	'08.05.19
처 리 방 식	A²EBC 고효율 처리공법	합병 정화조	A²EBC 고효율처 리공법	KDHST 공법	A2EBC 공법	SSMMIAR 공법	A2EBC 공법	A2EBC 공법

4) 북신만 우수배제 펌프장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평인일주로 1134 (북신만 매립지내)

부지면적 : 16,961.3m²(용지 : 유지)

유역면적 : A=188.5ha(무전,북신동전역,정량,태평,문화동일부)

5)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국치해안길 131 (인평동)

부지면적 : 34,483㎡(10,431평)

가동개시일 : 94. 12. 10.

시설개요

처리용량	처리구역	차집 관로연장	중계 펌프장	구조물 시설	처리방식
54,000㎥/일	606ha(시 내전역)	11.08km	4개소	유입펌프장 외 15	표준활성오니법 및 스텝헵지·호기법

6) 분뇨처리장

위치 : 통영시 평인일주로 1903-50 (명정동)

부지면적 : 7,061㎡

건물면적 : 2,053㎡

처리용량 : 103kl/일

처리방식 : 액상부식법

가동개시일 : '96.10.12

운영방법 : (주)하이엔텍 민간 관리대행 운영

2. 보전방안

1) BTL사업 확대

해양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분야는 하수도, 소규모마을하수도 시설, 하수관거 시설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주택,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가정용, 일반용 오수합병 정화조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BTL사업의 확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배출하여 해양수질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2) 권역별 하수처리장 증설

현재 통영의 하수종말처리장은 1개소, 처리능력은 하루 54,000㎥이다. 하지만 통영의 하루 오폐수 발생량은 대략 60,000톤이고, 하수종말처리는 약 36,000톤임을 감안하면 누수율을 감안하더라도 통영시의 하수처리율은 72%정도이다. 따라서 하수관거 보급률이 낮은 권역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3)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종말처리장과 이격거리가 너무 먼 소규모 정주마을과 섬지역의 경우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도산면, 사랑면, 욱지면, 한산면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 외 시설 현대화

통영은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굴어업이 발달해 있다. 그런데 굴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악취로 인한 피해는 물론 엄청난 양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잘피 등 해조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해결방안은 폐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굴 폐각 활용방안을 높여 오·폐수의 바다유입을 줄여야 한다. 또한 축산시설 현대화율을 높여 효율적인 가축 분뇨처리를 달성해야 한다.

○ 해양저질 보전

1. 현황 -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1) 항만해역

통영의 바다는 수많은 만으로 이루어져 조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저질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2016년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구안 저질의 중금속과 환경유해물질 오염도 주의 수준을 넘어 관리 수준의 몇 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조선소 주변 해역

바다의 땅이라 불리는 통영에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고 작은 조선소들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남망산 남측 주변에 산재해 있던 작은 수리조선소, 도남동 신아SB조선소, 봉평동 21세기 조선소, SPP조선소, 성동조선소 등 수많은 조선소가 창업과 폐업을 거듭해 왔다. 조선 또는 수리 과정에서 중금속 오염물질과 해양생물이 들러붙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방오페인트의 주요 성분인 유기주석화합물(TBT)이 바다 저질에 침적되어 해저토양을 오염시켰다.¹⁾

3) 양식장 주변해역

통영은 바다의 단위면적당 양식어장 면적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이다. 특히, 굴, 멍게, 가두리양식어장은 밀식 어업의 특성으로 저질이 오염되어 황폐해진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양식수산물이 끊임없이 배출하는 배설물이 쌓이고 쌓여 양식어장 밑 저질에 가스층이 생기고, 산성화 또한 피할 길이 없다. 특히 가두리 양식장은 배합사료, 생사료 등을 어류의 먹이로 사용하는데, 유전자조작 사료가 사용되어 어장 밑에 쌓이게

1)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조선소 인근 저질을 채취하여 창원시 소재 동진생명연구원에 시료분석을 맡겼고 그 결과 여러 해역 저질이 중금속에 오염되었음을 확인했다.

되어 2차, 3차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 보전방안

1) 항만해역

우리나라의 중금속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해저 토양은 대부분 준설로 문제를 해결한다. 해양수산부와 통영시가 강구안, 동호항의 오염된 저질 퇴적토 준설사업을 계획했던 것도 문제해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준설이 가장 확실한 오염퇴적토 문제 해결 방안이라 할지라도 일의 우선순위를 살펴야 한다. 통영항의 경우 저질오염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 오염 퇴적토를 준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퇴적토를 준설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시장, 동피랑 남서측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수관거 공사부터 시행해야 한다.

2) 조선소 주변 해역

우리나라 대부분 조선소 주변 해역은 중금속과 유해물질로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이나 수리 과정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 각종 오염물질, 특히 2000년대 이전 유기주석화합물(TBT)이 포함된 페인트 사용으로 조선소 주변 해역 저질은 오염도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남망산 남측 해변에 산재해 있던 수리조선소, 신아조선소 앞바다 저질의 오염상태는 매우 나쁠 것이다. 이 문제 또한 오염원인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선행되고, 오염퇴적토를 준설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양식장 주변 해역

양식어업의 특성상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오염원인 물질을 줄일 수 없다면 자주 정화해야만 한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5년마다 면허해역을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면허해역 정화사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여 정화사업 시늉만 내는 실정이다. 양식어업 해역의 저질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5년 또는 10년마다 어장이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양식어장 밀집도가 높은 통영해역의 실정을 고려하면 어장감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장감축에 따르는 자원 마련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 해양쓰레기 관리

1. 관리현황

1) 부유쓰레기

통영지역의 부유쓰레기 대부분은 스티로폼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영시청에서 2016년 발간한 페스티로폼 부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50% 정도의 페스티로폼 부자가 수거되고 나머지는 어민이 보관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실정이다. 통영의 바다 위에 있는 스티로폼 부자의 수가 대략 1,000만 개로 추정하고, 사용 연한이 약 3년으로 가정하면 매년 300만 개 이상의 페스티로폼 부자가 발생한다. 이를 근거로 추정해보면 바다에 버려지는 페스티로폼 부자의 개수는 약 50만 개 이상이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침적 쓰레기

통영거제환경연합이 지역주민과 함께 수행한 ‘견내량해양정화사업’의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침적쓰레기 대부분은 어구이다. 그물, 로프, 통발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대부분 파도나 조류에 밀려 암반이나 연안에 밀려 있다. 이로 인해 연안 습지는 제 기능을 상실해 각종 어류의 산란지와 생육지 역할을 못 하는 실정이다. 침적쓰레기가 바다 저질을 덮고 있어 거머리말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덩성덩성 자라고 있을 뿐이다.

2. 관리정책 제언

1) 해양쓰레기 선제관리

해양쓰레기 문제해결 방안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해양쓰레기로 둔갑할 어구는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되는 스티로폼 부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생산을 금지해야 한다. 두 번째 정책제안은 어구 실명제 도입이다. 어구 실명제는 어구의 무단투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제안은 어구 분실 신고제를 도입이다. 조업 중에 발생한 사고나, 분실할 경우 이를 신고 처리함으로써 해양쓰레기로 버려져 생태계를 파괴할 원인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2) 해양쓰레기 사후관리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은 바다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대응하고 있다. 항만의 경우는 해양환경공단에서, 어항과 연근해는 어촌어항공단에서 관리하고, 마을어업면허 해역 이외의 연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해역 대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으나, 면허해역 침적쓰레기와 진입도로가 없는 연안, 특히 섬 지역은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한 ‘견내량해양쓰레기정화사업’ 실적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망일봉 남동측 방화섬의 경우, 선촌마을 주민과 화삼어촌계원 23명이 8개월 동안 매주 1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참여하고, 굴삭기를 5일간 투입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나, 처리량은 70%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 섬의 현실이 어떠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1종지선 연안 주변의 침적쓰레기 관리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1990년 이전의 견내량은 수백 만평의 거머리말 군락지가 있어 어류의 산란지와 생육지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했으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거머리말은 1/10 이하로 줄어들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침적쓰레기 수거활동 중에 발견한 패각더미와 거대한 쓰레기 무덤은 연안의 부착해조류, 뿌리 해조류 서식지 파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육지와 인접한 연안의 해양쓰레기 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수심이 매우 낮고 암반이 발달하여 기존의 해양쓰레기 수거업체의 장비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고, 도로가 없으므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작업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지역의 어민과 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저지형에 익숙한 어민과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지역 어민의 선박을 이용하면 해양정화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조업 중에 알게 된 침적쓰레기 위치를 훤히 알고 있는 어민의 정보를 활용하면 침적쓰레기 수거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침적쓰레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뗏목에 크레인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된다. 이에 대한 정보는 화삼어촌계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수행하고 있는 ‘견내량해양쓰레기정화사업’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코트다쥐르, 남해안 중심,
통영 조선업의 위기와 극복과제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박사)

토론 3 통영 조선업의 위기와 극복과제

1. 조선산업의 제조업에서의 위상과 경남 조선업

- 조선업은 전/후방연계효과가 큰 산업
 - 조선업은 종합기술산업, 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후방연계효과가 매우 큼
 - 선박은 철강/기계/전자/도료 등 많은 재료 및 기자재가 필요한 산업으로 후방 산업의 발전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요소(후방산업 수요창출)
 - 해운, 수산, 관광, 자원개발 등 전방산업 수요에 의해 조선업 경기는 변동



〈 그림 1 〉 조선산업의 전/후방 산업

- 지역별 조선산업의 위상
 - 2015 년 기준 경남지역 제조업 생산액(142 조원) 중 조선업 생산액(31 조원) 비중은 22.2%를 차지. 전남은 7.4%를, 부산은 3.6%를 차지함
 - 이중 경남은 전국대비 조선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비중이 각각 39.6%, 44.7%, 49.0%로 최고 수준

(표 1) 지역별 제조업 대비 조선업의 비중(2015년 기준)

(단위 : 개, 명, 백만원)

	제조업 전체			조선업			제조업대비 조선업 비중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전국	68,913	2,946,796	1,429,084,824	1,404	157,518	63,474,215	2.0	5.3	4.4
부산	4,239	144,685	43,890,743	106	4,892	1,572,737	2.5	3.4	3.6
인천	4,760	177,350	65,479,492	3	66	27,430	0.1	0.0	0.0
울산	1,775	172,657	178,475,909	354	48,600	22,033,723	19.9	28.1	12.3
경기	24,048	883,428	350,103,479	3	57	7,602	0.0	0.0	0.0
충남	3,866	236,715	160,818,350	4	82	19,445	0.1	0.0	0.0
전북	1,846	91,784	43,112,133	34	2,142	1,409,757	1.8	2.3	3.3
전남	1,676	92,926	94,385,336	279	29,531	6,973,463	16.6	31.8	7.4
경북	5,238	255,109	147,124,369	62	1,669	300,368	1.2	0.7	0.2
경남	7,326 (10.6%)	353,489 (12.0%)	141,553,847 (9.9%)	556 (39.6%)	70,426 (44.7%)	31,119,710 (49.0%)	7.6	19.9	22.0

주) 조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7.

2. 통영 경제와 조선업

- 통영은 거제와 함께 선산업의 위상
 - 경남도내 4개 조선소가 위치한 창원, 통영, 거제지역의 제조업 대비 조선업 현황 중, 통영과 거제시 지역경제에서 조선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 통영시와 거제시의 조선업 생산액은 市 전체 제조업의 90% 이상을 차지

(표 2) 경남도내 주요지역의 조선업 현황(2015년 기준)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제조업	경상남도	7,326	353,489	141,553,847	47,010,993
	창원	1,891	111,345	57,012,997	18,995,886
	통영	90	10,435	2,140,909	469,254
	거제	339	58,321	25,124,631	7,086,362
조선업	경상남도	556	70,426	31,119,710	7,724,301
	창원	64	4,220	2,364,897	47,871
	통영	51	9,065	1,963,816	385,780
	거제	257	49,785	24,446,629	6,584,216
제조업 대비 조선업 비중	경상남도	7.6	19.9	22.0	16.4
	창원	3.4	3.8	4.1	0.3
	통영	56.7	86.9	91.7	82.2
	거제	75.8	85.4	97.3	92.9

주) 조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7.

- 위기의 경남, 위기의 통영
 - 경기침체로 선박 발주가 급감했던 2009~2015년 세계 조선사들의 과도한 수주경쟁의 영향으로 국내 조선사들도 무리한 헐값 수주를 하는 등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조선업 구조조정에 이름
 - 2018년 6월 말 기준 경남도내 4대 대형 조선소(삼성, 대우, stx, 성동)의 근로자 수(직영+사내협력업체)는 2015년 말(약 10만명) 대비 40% 이상 감소(42,000명)
 - 통영은 약 8천명의 성동조선해양이 현재 대부분 실직임
 - 통영은 그간 상동조선을 포함하여 SLS조선, 신아sb, 21세기조선, SPP 등 중견 조선업체들이 계속 위기를 겪어온 지역임

(표 3) 경남의 주요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단위: 개, 명, %)

구분	제조업		조선업 (3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1차 철강제조업 (241)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416,493	4,045,121	3,016	132,258	11,274	366,378	4959	103,227
경남	35,257 (8.5)*	429,475 (10.6)*	1,205 (40.0)*	60,197 (45.5)*	2,130 (18.9)*	42,801 (11.7)*	827 (16.7)*	13,688 (13.3)*
진주	2,543 (7.2)	15,270 (3.6)	17 (1.4)	57 (0.1)	211 (9.9)	2,458 (5.7)	51 (6.2)	726 (5.3)
통영	458 (1.3)	7,761 (1.8)	66 (5.5)	5,596 (9.3)	-	-	-	-
사천	903 (2.6)	17,442 (4.1)	54 (4.5)	1,803 (3.0)	52 (2.4)	748 (1.7)	10 (1.2)	374 (2.7)
김해	10,051 (28.5)	93,282 (21.7)	243 (20.2)	1,588 (2.6)	646 (30.3)	9,244 (21.6)	374 (45.2)	3,345 (24.4)
밀양	948 (2.7)	8,957 (2.1)	8 (0.7)	66 (0.1)	42 (2.0)	981 (2.3)	29 (3.5)	591 (4.3)
거제	824 (2.3)	54,454 (12.7)	402 (33.4)	44,277 (73.6)	1 (0.0)	6 (0.0)	2 (0.2)	108 (0.8)
양산	3,696 (10.5)	50,416 (11.7)	31 (2.6)	243 (0.4)	227 (10.7)	6,062 (14.2)	96 (11.6)	1,792 (13.1)
의창구	3,147 (8.9)	25,055 (5.8)	12 (1.0)	89 (0.1)	224 (10.5)	2,637 (6.2)	28 (3.4)	176 (1.3)
성산구	3,011 (8.5)	76,739 (17.9)	32 (2.7)	346 (0.6)	256 (12.0)	13,452 (31.4)	63 (7.6)	3,677 (26.9)
합포구	1,193 (3.4)	7,369 (1.7)	40 (3.3)	296 (0.5)	22 (1.0)	343 (0.8)	16 (1.9)	107 (0.8)
회원구	1,937 (5.5)	14,042 (3.3)	7 (0.6)	26 (0.0)	153 (7.2)	1,645 (3.8)	10 (1.2)	25 (0.2)
진해구	668 (1.9)	8,255 (1.9)	94 (7.8)	2,630 (4.4)	29 (1.4)	554 (1.3)	16 (1.9)	221 (1.6)
의령	258 (0.7)	1,923 (0.4)	-	-	8 (0.4)	225 (0.5)	6 (0.7)	118 (0.9)
함안	2,405 (6.8)	23,739 (5.5)	67 (5.6)	453 (0.8)	172 (8.1)	2,445 (5.7)	86 (10.4)	1,540 (11.3)
창녕	804 (2.3)	8,937 (2.1)	3 (0.2)	19 (0.0)	78 (3.7)	1,829 (4.3)	27 (3.3)	629 (4.6)
고성	480 (1.4)	5,766 (1.3)	120 (10.0)	2,562 (4.3)	1 (0.0)	2 (0.0)	1 (0.1)	20 (0.1)
남해	245 (0.7)	1,017 (0.2)	3 (0.2)	92 (0.2)	-	-	-	-
하동	330 (0.9)	1,227 (0.3)	6 (0.5)	54 (0.1)	1 (0.0)	1 (0.0)	2 (0.2)	17 (0.1)
산청	306 (0.9)	1,702 (0.4)	-	-	-	-	1 (0.1)	23 (0.2)
함양	302 (0.9)	1,969 (0.5)	-	-	5 (0.2)	167 (0.4)	1 (0.1)	13 (0.1)
거창	398 (1.1)	2,681 (0.6)	-	-	1 (0.0)	1 (0.0)	7 (0.8)	185 (1.4)
합천	350 (1.0)	1,472 (0.3)	-	-	1 (0.0)	1 (0.0)	1 (0.1)	1 (0.0)

주) ()는 경남 대비 비중, ()는 전국 대비 비중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

(표 4) 경남의 주요산업 종사자수 변화

(단위: 명, %)

구 분	제조업			조선 (3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차 철강 제조업 (241)		
	'11 년	'16 년	증감률	'11 년	'16 년	증감률	'11 년	'16 년	증감률	'11 년	'16 년	증감률
전국	3,587,482	4,045,121	2.4	144,273	132,258	-1.7	306,542	366,378	3.6	98,199	103,227	1.0
경남	404,778	429,475	1.2	71,908	60,197	-3.5	33,081	42,801	5.3	14,659	13,688	-1.4
진주	14,010	15,270	1.7	89	57	-8.5	1,850	2,458	5.8	654	726	2.1
통영	11,488	7,761	-7.5	8,350	5,596	-7.7	-	-	-	-	-	-
사천	14,469	17,442	3.8	2,115	1,803	-3.1	863	748	-2.8	343	374	1.7
김해	84,199	93,282	2.1	1,802	1,588	-2.5	8,463	9,244	1.8	4,178	3,345	-4.3
밀양	6,601	8,957	6.3	79	66	-3.5	702	981	6.9	291	591	15.2
거제	55,519	54,454	-0.4	46,331	44,277	-0.9	2	6	24.6	372	108	-21.9
양산	44,007	50,416	2.8	466	243	-12.2	4,486	6,062	6.2	2,476	1,792	-6.3
의창구	24,308	25,055	0.6	203	89	-15.2	2,208	2,637	3.6	409	176	-15.5
성산구	78,532	76,739	-0.5	1,445	346	-24.9	10,143	13,452	5.8	3,593	3,677	0.5
합포구	5,354	7,369	6.6	191	296	9.2	357	343	-0.8	93	107	2.8
회원구	14,643	14,042	-0.8	20	26	5.4	1,368	1,645	3.8	30	25	-3.6
진해구	10,745	8,255	-5.1	5,888	2,630	-14.9	238	554	18.4	127	221	11.7
의령	2,024	1,923	-1.0	196	-	-	248	225	-1.9	176	118	-7.7
함안	18,575	23,739	5.0	356	453	4.9	1,158	2,445	16.1	1,549	1,540	-0.1
창녕	5,276	8,937	11.1	15	19	4.8	994	1,829	13.0	215	629	23.9
고성	7,357	5,766	-4.8	4,246	2,562	-9.6	1	2	14.9	-	20	-
남해	840	1,017	3.9	91	92	0.2	-	-	-	12	-	-
하동	982	1,227	4.6	25	54	16.7	-	1	-	18	17	-1.1
산청	966	1,702	12.0	-	-	-	-	-	-	-	23	-
함양	1,823	1,969	1.6	-	-	-	-	167	-	48	13	-23.0
거창	1,655	2,681	10.1	-	-	-	-	1	-	74	185	20.1
합천	1,405	1,472	0.9	-	-	-	-	1	-	10	1	-36.9

주) 증감률은 연평균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1, 2016.

(표 5) 경남의 주요산업 생산액 변화

(단위: 십억원, %)

구 분	제조업			조선 (3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차 철강 제조업 (241)		
	'11 년	'16 년	증감률	'11 년	'16 년	증감률	'11 년	'16 년	증감률	'11 년	'16 년	증감률
전국	150,353	1,415,810	-1.2	78,344	57,094	-6.1	170,809	197,045	2.9	121,120	81,262	-7.7
경남	154,293	136,203	-2.5	38,378	28,116	-6.0	13,008	15,949	4.2	9,376	7,069	-5.5
진주	2,530	2,563	0.3	-	-	-	316	438	6.7	217	29	-33.2
통영	3,514	2,303	-8.1	3,264	2,113	-8.3	-	-	-	-	-	-
사천	4,810	6,358	5.7	1,174	603	-12.5	195	171	-2.5	253	171	-7.5
김해	19,530	18,562	-1.0	277	186	-7.7	2,157	2,292	1.2	1,457	919	-8.8
밀양	1,373	1,991	7.7	-	-	-	171	182	1.3	156	219	7.0
거제	26,652	23,941	-2.1	25,961	23,236	-2.2	-	-	-	62	-	-
양산	13,868	14,661	1.1	125	17	-33.0	1,743	2,306	5.8	1,315	908	-7.1
의창구	6,917	5,731	-3.7	12	-	-100.0	534	563	1.1	127	39	-21.0
성산구	51,121	40,929	-4.3	1,826	39	-53.6	6,625	7,859	3.5	4,308	3,036	-6.8
합포구	893	1,291	7.7	66	28	-15.7	-	148	-	-	30	-
회원구	5,430	2,753	-12.7	-	-	-	289	491	11.2	-	-	-
진해구	6,338	2,545	-16.7	4,400	1,183	-23.1	53	100	13.8	68	59	-2.8
의령	853	606	-6.6	249	-	-	67	72	1.5	70	-	-
함안	6,147	6,273	0.4	39	48	4.4	295	579	14.4	1,105	801	-6.2
창녕	1,632	2,848	11.8	-	-	-	494	711	7.6	36	455	65.8
고성	1,475	1,146	-4.9	954	620	-8.3	-	-	-	-	-	-
남해	57	66	3.0	-	-	-	-	-	-	-	-	-
하동	102	142	6.9	-	-	-	-	-	-	-	-	-
산청	115	266	18.3	-	-	-	-	-	-	-	-	-
함양	358	290	-4.1	-	-	-	-	27	-	-	-	-
거창	418	768	12.9	-	-	-	-	-	-	-	56	-
합천	159	169	1.3	-	-	-	-	-	-	-	-	-

주) 증감률은 연평균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2011, 2016.

(표 6) 경남도내 주요 조선산업지역의 조선업 현황 (2015년 기준)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제조업	경상남도	7,326	353,489	141,553,847	47,010,993
	창원시	1,891	111,345	57,012,997	18,995,886
	통영시	90	10,435	2,140,909	469,254
	거제시	339	58,321	25,124,631	7,086,362
조선업	경상남도	556	70,426	31,119,710	7,724,301
	창원시	64	4,220	2,364,897	47,871
	통영시	51	9,065	1,963,816	385,780
	거제시	257	49,785	24,446,629	6,584,216
제조업 대비 조선업 비중	경상남도	7.6	19.9	22.0	16.4
	창원시	3.4	3.8	4.1	0.3
	통영시	56.7	86.9	91.7	82.2
	거제시	75.8	85.4	97.3	92.9

주) 조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7.

3. 통영 조선업과 통영경제의 위기

□ 성동조선의 위기

- 성동조선은 2014년 최하의 실적이지만 '15년부터 매출액 상승을 보였고, 2016년 영업이익은 도내 4대 조선사 중 유일하게 (+)임
 - 2016년 영업이익 : 삼성중공업 -1817억원, 대우조선해양 -1조4135억원, STX 조선해양 -1975억원, 성동조선 392억원
- 성동조선해양은 2017년에 수주잔량이 하반기에 인도된 이후 조업 중단
- 단기간에 무리한 건조능력 확충. stx는 중국 등 투자, 성동조선은 블록생산에서 단기간에 대형선박 건조로 전환, 과다한 금융부담. 경영진의 오판과 미래전망 등 전문성 결여
-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시에 블록생산 체제에서 대형선박건조 체제로 전환하면서 과다한 금융부채 부담
- 채권단의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전문성 뒷전. 전문성을 살려 기술혁신, 수주활동 강화, 기술인력 확보노력 필요했지만, 그 대신 인력과 설비감축에 주력
- 채권단은 조선산업, 연관산업, 고용, 기술축적과 혁신, 지역과 국가발전 등과 같은 종합적인 파급효과보다는 주인의식 없이 오직 채권이나 청산가치만 관심. 선박 건조기업 본연 활동과 활력은 뒷전

□ 신아sb 도산

- 통영시가지의 오랜 조선업체인 신아sb조선은 도산 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됨
- 미래 통영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으로의 사업전환이기는 하나 당장의 통영경제와 실업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통영은 남해안 한려수도의 중심, 한국의 코트다쥐르, 코발트블루의 청정해역의 중심으로 수산업 보고지역임. 수산업 관련 선박업은 여전히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함에도 기반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음

□ 성동조선과 통영경제

- (고용)성동조선의 청산은 통영지역의 고용, 생산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중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 과도 어긋나는 결과
 - 통계청 자료에 의한 통영시의 조선업 종사자수는 2015년 기준 9,065명으로 성동 조선의 종사자가 2015년 8,005명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통영시 조선업의 88.3% 수준

- (매출액)성동조선의 2015년 매출액(1조6,929억원)을 통영지역의 2015년 조선업 생산액(1조9,638억원)과 비교한다면 이는 통영시 조선업 생산액의 86.2% 수준이었음
- (전후방 연관산업)조선업체의 청산/도산은 후방산업인 경남과 우리나라 철강, 기계, 전자, 화학산업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
 - 성동조선 협력·거래업체 : (경남) 900개사 8,700억원, (경남외) 200개사 2,100억원
 - 성동조선의 경남지역 연관산업 기여도 : 약 8,700억. 기계산업(3,800억원), 철강산업(1,700억원), 전자·화학·해운·수산업(3,170억원) 등임

4. 통영 조선업 육성과제

- 성동조선 터, 선박건조 경남형 일자리사업으로 전개
 - (성동조선의 문제점 : 경쟁력 약화)대형조선사들도 중국 등 저가 공세에 밀려 수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 중견·중소형조선사들은 기술개발과 더욱 치열한 가격 경쟁 외에는 차별화할 방법이 없음(성동조선 ‘대형선박 건조기술력’ 유출 및 상실)
 - 성동조선은 세계경제교역환경을 고려하고 조선해양플랜트업의 위축을 대비하여 기존의 벌크선, 유조선 등의 신조선분야를 대신하여 조선기자재, 블록 및 관공선 수주생산, 통영과 남해안 수산업에 맞는 업종으로 특화하여 조업 고려
 - 자동차 중심의 광주형 일자리사업과 유사한 통영의 조선업을 경남형 일자리사업 형태로 전환, 전개 추진하여 통영경제 재건 주력
- 선박수리업 육성 모색
 - 선박업의 MRO인 수리·건·개조산업은 직접적으로는 첨단조선업 기자재와 기술이 결합되어야 함. 이러한 기술들의 집적화된 지역에 육성되어야 함
 - 동시에 세계적인 선박의 입항과 수리, 개조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변인프라-도시 기능, 관광과 문화여건, 국제회의, 언어, 환경, 주거 등의 여건이 고루 갖추어져야 함
 - 예를 들면 선박수리개조업의 선진지인 싱가포르가 대표적임. 중국은 오래 전부터 상해와 상해양산항으로 이어지는 중간육지부에 이러한 기능을 조성하려 했으나 위와 같은 제반기능 미흡으로 어려움 봉착
 - 어려운 통영경제와 통영조선업 재건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치밀하게 하여 우리나라 대표 선박 수리·개조업 추진 모색

5. 기타 통영 발전에 관한 제언

□ 산업구조개편 노력

- 그간 통영은 성동조선, 신아sb 등 조선업이 제조업의 90% 이상을 점하는 구조였음
- 두 중견조선업체가 도산한 상태에 다시 조선업에 치중하기란 상당한 도전이 필요하고 치밀한 준비가 또한 요구됨
- 따라서 조성될 KTX철도망을 대비하여 해양관광의 중심, 내륙물류의 중심지로 육성 가능하므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가야 함

□ 동북아 해양관광의 중심지 육성

- 통영, 거제로 이어질 남부내륙KTX가 조성되면 남해안의 중심인 통영을 중심으로 관광기반을 구축할 경우 통영은 비약적 발전 가능
-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철도 등 기간망 연결이 된다면 통영은 동북아 4계절 관광의 중심지로 성장발전 가능
- 해양관광, 해안관광 기반을 확충하여 차제에 통영산업구조 개편 필요

□ 동북아 물류기반 확충, 해양-내륙물류기반 육성

- 철도망의 연결은 해양과 육지의 접점인 통영 일원은 관광물류의 중심지로 재탄생 가능
- 컨테이너 집하, 선하적 대신, 내륙물류기능으로 상품의 분류, 재포장, 라벨링, 집배송 등과 같은 소프트한 물류기지로 육성, 경쟁력 제고

□ 통영 해안선 정비 및 해양레저 전진기지 개발

- 통영 전역의 해안선을 복원, 개발, 정비하여 해양시대, 해양관광시대에 대비
- 세계적인 해양레저, 해양휴식의 전진기지 개발

□ 국립적조연구소 설립 및 해양바이오 연구

- 통영을 중심으로 한 한려해상의 수산양식에 여름철 최대 고민인 적조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적조연구소를 설립
- 작조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으면서 동시에, 적조 관련문제 해결과 연계되는 융복합기술로 해양바이오 부문도 공동 연구하여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국립연구소로 육성

통영시 도시재생, 짚어보고 내다보다

최광수 (경상대학교 교수)

토론 4 통영시 도시재생

지금 대한민국에는 도시재생의 열풍이 불고 있다. 남도의 끝 통영은 어느 지역보다 도시재생에 관한 관심이 높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사례가 “봉평동 도시재생 사업”이니 전국적인 관심과 더불어 지역 주민 모두의 관심이 크게 쏠리고 있다.

봉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영시와 LH 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1조 1천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출발했다. 2017년 12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되어 본격화되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2018년 9월 마스트플랜 국제공모를 통해 포스코 A&C 컨소시엄이 제안한 '통영 캠프 마레'가 당선작으로 발표되었다.

최근 5천 5백억 원으로 축소 발표되었지만, 통영시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구. 신아sb 조선소 부지를 포함한 봉평동 일대에 단기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통영시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통영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도시재생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완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시민들의 가장 큰 우려도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자칫 난개발이 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대와 우려는 다양한 자리에서 제기되고 있다. 12월 7일 통영에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도시재생이 주요 테마로 다루어졌고,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때 여러 전문가들의 발표에서 제시된 핵심 단어를 뽑아보면, 통영의 문화적 자산, 주민의 관계형 네트워크, 랜드마크, 12공방, 교통 개선, 바다 정화, 세대간 통합, 지역공동체의 지속성, 사회자본 축적, 주민참여와 거버넌스(협치), 상호책임과 협력, 경험학습과 성찰적 대화, 주민 역량, 장기발전계획 등이었다. 각각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통영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뿌리내려 왔으며, 어떤 성과를 만들었던가를 냉정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성공했다고 내세울 만한 경험이 많지 않다. 더욱이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지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은 시작되었으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이 시점에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1) 시간을 확보하고 투자해야 한다.

시 행정부를 비롯하여 LH 공사와 국토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도시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투자 요소로 시간을 빼놓아서 안 된다. 조급함으로는 결코 명품을 만들지 못한다. 해외 선진사례를 잘 벤치마킹하여 뛰어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멋진 설계도를 완성하여, 적절한 민자를 유치하고, 재정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추진할 행정지원체계와 민관협력 시스템을 잘 갖춘다 하더라도 단숨에 모든 사업을 종결시키려 들어서는 안 된다.

단기간에 추진할 사업과 중장기간에 걸쳐 만들어갈 사업을 잘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정된 5년 안에 모든 사업을 종결지으려는 노력은 자칫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설익은 밥을 먹다가 탈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면서 단시간에 밀어부쳤던 4대강 사업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 주민과의 합의와 협력이 없으면 사상누각이 된다.

이미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여론 수렴과 다양한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끌어내지 않은 채 시 행정부와 LH 공사의 합의만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합의나 시민들의 공감대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몇 차례의 주민설명회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은 더 이상이 실효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통영의 지역 정체성이나 주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다.

이미 국제공모전을 통해 밑그림이 확정되었고, 세부 사업과 관련 예산 등이 확정되었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23년으로 정해져 있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자칫 주민과의 합의와 협력을 무시하고 가기가 쉽다. 그리고 싶은 유혹이 클 것이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뛰기에도 부족한 시간일 것이다.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길은 있게 마련이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높여야 하고 동의를 끌어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개별 사업의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주민들의 수용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생색내기식의 대화채널 운영은 안 된다. 도시 재생이든 도시 경영이든 진심 있는 대화와 타협은 필수요건이다. 합의하고 협력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사업추진 속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 결과는 시민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합의와 협력 없이 졸속으로 이룬 성과라면 그것은 통영시민의 것이 아니라, 시장, 사장, 장관, 대통령의 성과일 뿐이다.

그리고 대화하고 협력할 상대는 봉평동 주민만이 아니다. 통영시민 전체가 대상이다. 봉평동은 봉평동 주민들만의 것이 아닌 통영시민 모두의 것이다. 미래에 통영에서 살아갈 세대의 것이기도 하다. 이를 왜면하고 봉평동 주민들만 설득하려 들면 관 주도의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3) 진정한 명품은 만든 이를 위대하게 만든다.

통영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LH 공사가 채산성을 이유로 생색내기 식으로 건물 몇 개 짓고, 아파트 지어서 집장사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의 가슴을 놀라게 만들었던 ‘자라’는 숫하게 많았다. 하지만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400년 역사의 도시 통영, 미래 해양관광의 대표 도시 통영을 명품도시로 만들지 않고, 그저 그런 싸구려 도시로 만들어버린다면 LH 공사의 오명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이다.

반대로 명품 도시로서 무궁한 가치를 가진 통영시가 선진 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다면 LH 공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명품 기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칼 라거펠트가 샤넬이라는 명품을 만들었지만, 샤넬로 인해 전 세계가 칼 라거펠트를 기념하고 있다.

덧붙여, 오늘 행사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께 몇 가지 제안 내지 요청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1) 복합 문화시설 설치

통영시에서 적극 제안하고 요청하는 사안의 하나이다. 부처연계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이다. 전체 사업규모가 축소된 만큼 부처연계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복합 문화시설 설치 사업은 봉평동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5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만큼 전액 정부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화콘텐츠, 조선산업 아카이빙, 이순신 테마, 12공방 카페 등을 망라하는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면, 봉평지구는 통영의 핵심 관광 시설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윤이상, 박경리, 김춘수, 전혁림과 같은 통영 출신의 거장들의 콘텐츠를 집대성하여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둘째, 대상지 신아조선소 조선산업 히스토리관(아카이빙)
셋째,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지역 문화와 역사를 보여주고 즐기는 전망·전시시설
넷째, 12공방 생산품 판매 및 카페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시설이다.

2) 해상교통 문제 적극 해결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기존의 충무교와 통영대교를 이용한 교통로는 관광 시즌과 주말이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새로운 교통망에 대한 대책이 필수 사항이다.

시내에서 도남동 또는 봉평동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다리 건설이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엄청난 재정투자와 해상교통안전 문제, 해양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통영시와 지역 여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상택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강구안 주변의 시내 중심부에서 수상택시를 타고 봉평동으로 진입하면 육상 교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훌륭한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 연안여객선들이 통행하고, 각종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통영항을 가로질러 수상 택시가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관계법령 정비는 물론이고, 유람선 업체와 여객선 업체들과의 충분한 협의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 관계 기관과 업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안전문제, 채산성, 기존 육상과 해상 교통시스템 개선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과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3) 해안 항만정비

폐조선소 항만 친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해상교통과 연결하여 봉평 지구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영시와 해양수산부가 협의 중이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국비 450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MEMO

MEMO



민주자치 발전포럼

주최 :  통영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민주연구원

주관 :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